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December 12, 2025 Vol. 988

KPCA LA노회–서북남노회, 합병·새로운 출발

통합 통해 선교적 역량 집중

해외한인장로회 산하 LA노회와 서북남노회가 합병 감사예배를 드리며 두 노회의 연합을 선언했다. ⓒ기독일보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이하 KPCA) 산하 로스앤젤레스노회(LA노회)와 서북남노회가 8일 오전 11시에 주향교회(김신 목사)에서 합병 감사예배를 드리며 두 노회의 연합을 선언했다.

노회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을 넘어, 신앙 공동체로서의 연합과 미래 비전,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KPCA는 최근 북미 전역과 디아스포라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 이민교회 교인 수 감소, 차세대 이탈 등의 흐름에 주목하며, 단순히 외형만 유지하는 노회 구조가 아닌 실제적 조직과 사역 중심의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회 차원에서는 노회 간 자율적 통합을 통해 선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다음 세대 교육과 지역사회 섬김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해 왔다.

이번 LA노회와 서북남노회의 합병은 바로 이러한 교단의 흐름에 발맞추어 미래를 준비하고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주향교회에서 진행된 합병 감사예배에는 양 노회의 임원들과 노회원들, 외부 초청 인사들이 함께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 됨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LA노회 노회장 김신 목사의 사회와 서북남노회 박상근 목사의 말씀으로 진행되었으며,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번 병합이 단순한 조직의 합침이 아닌 신앙의 연합임을 깊이 되새겼다.

예배 중에는 두 노회의 각각의 빛을 상징하는 초를 하나의 큰 초에 합쳐 밝히는 상징적 예식이 거행됐다. 이 불꽃은 하나 됨의 연합을 나타내며, 동시에 촛대 아래에는 구약의 '돌단(에트)'을 상징하는 작은 돌들이 담겨, 하나님 앞에서 이 병합이 단순한 절차가 아닌 언약의 고백임을 드러냈다.

합병 선언문에서는 이번 통합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결단이며, 함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공동체적 다짐임을 밝혔다.

축사에는 KPCA 장로부총회장 배문성 장로, 서노회 노회장 노영호 목사, 서중노회 노회장 김석훈 목사 등이 참여해 두 노회의 연합이 교단 전체에 미칠 선한 영향력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전했다.

노영호 목사는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나님의 노회가 이제 복음의 지경을 크게 넓혀 나갈 부분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님의 축복이 연합의 자리로 나가는 이곳에 있으리라 확신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이 노회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한다"고 축사했다. **토마스 맹 기자**

예멘 기독교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걸어다니는 성경 되겠다" 고백

내전으로 무너진 예멘의 건물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예멘에서 기독교 박해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 최근 후티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여러 기독교인이 체포되거나 실종됐다는 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현지 기독교인 '마제드'(Majed·가명)의 사연을 전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예멘 지하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겪는 공동체다. 수십년간 이어진 내전과 극단주의 세력의 지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다.

마제드는 "주변의 동료들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잇따라 납치됐고, 나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다"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긴장하고, 한 순간 한순간이 형벌 같은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은 꾸준하고 신중하게 다가온다. 잡힐 것을 아는 순간, 생각들이 마구 쏟아지고 모든 말과 선택들이 떠오른다. 결국 다가올 고난을 기다리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마제드는 두려움이 아닌 신앙적 사명을 붙든다. 그는 체포가 임박했다는 사실 앞에서 가장 먼저 성경구절 암기에 힘쓰고 있으며, "저는 어디로 끌려가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안전한 지역으로 도피할 수 있음에도 마제드는 여전히 자신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는 "도망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모두가 떠난다면 누가 남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곁에 남아 위로와 평화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멘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체포된 이들이 몇 주에서 몇 달, 혹은 그 이상 아무 소식 없이 실종되는 일이 흔하다. 고문과 심문이 반복되는 가운데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마제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사역하던 형제들이 심문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마제드는 체포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한다. 그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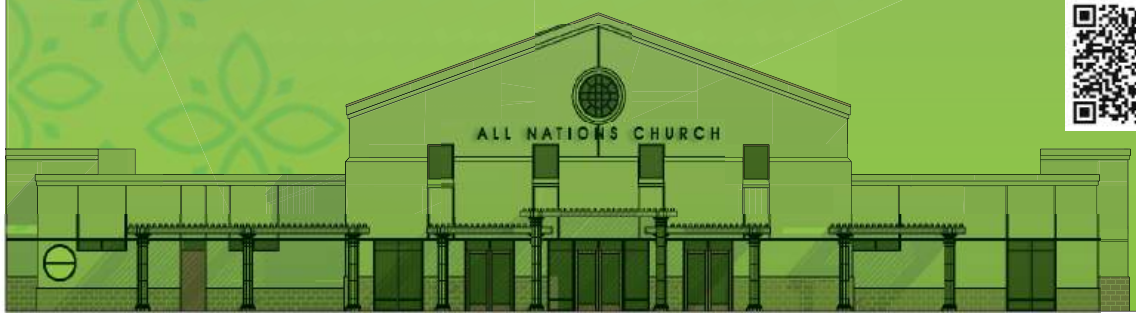
그는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멘에는 빛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을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신미쉘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Serge PRESENTS
GCL을 개발한 Serge팀이 함께 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CL conference
GOSPEL CENTERED LIFE
ANC 창립 30 주년 기념
1996 2026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일의 삶속에서
어떻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시나요?
Jan. 24, 2026 / ANC 온누리교회 본당
8:00am-4:30pm / 점심 제공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ospel-Centered Life Conference)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지를 나눕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에 관심이있다면, 컨퍼런스에 등록하세요!
문의: ANC 온누리교회 (818-834-7000) / www.anconnuri.com


anc ANC 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ANC온누리교회 82명 임직 "믿음의 본이 되는 직분자 되길"

지난 12월 7일(주일) 오후 3시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는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총 82명의 새로운 일꾼을 세웠다.

이날 김태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임직감사 예배는 권재일 (당회 서기장로) 기도, 민종기 목사(KC-MUSA 이사장) 설교, 임직자 간증 김영미(피택권사)와 손종근(피택안수집사), 경과 보고 정훈 목사, 임직자 서약, 임직패 증정 및 안수기도, 임직선포, 마이클 리 목사(ANCC 담임) 축사, 최태석 목사(CRC 교단 한인사역 디렉터) 권면, 최운호 신임 장로 임직자 인사, 축송, 광고, 찬송,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민종기 목사는 히브리서 11:4-7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 배경부터 짚으며, 임직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전했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8세기-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룹-백인, 남성, 기독교가 있었다. 그와 같은 주류 신앙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판했다. 모더니즘 시대는 억압적이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지식이라는 것은 다원적이며 상대적이며, 하나의 지식이 옳다고 하는 것은 억압을 낳기 때문에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NC 온누리교회는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총 82명의 새로운 교회의 일꾼을 세웠다. ⓒ기독일보

"다원적 세대 가운데, 기독교 복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히브리서는 이 배도의 시대 가운데 던지는 놀라운 말씀이다. 다른 신약성서의 문서보다 조금 늦게 쓰여진 히브리서는 당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쓰여졌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13장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답하고 있다며, "신앙은 어떤 모델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예배는 의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6일 동안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지는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에 앞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아벨, 노아, 에녹 등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믿음의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길" 축원했다.

임직자 간증에 나선 김영미 피택권사는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그 시간을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한 시간으로 삼으며, 임직 훈련에 임했다고 간증했다.

손종근 피택안수집사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해 자연스럽게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했지만 차츰 자신의 신앙이 식어가고,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아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최운호 신임장로는, "저희 임직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겠다. 대형교회라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ANC온누리교회는 시무장로 6명, 시무권사 12명, 명예장로 18명, 명예권사 10명, 시무안수집사 남 14명, 여 22명을 임직했다.

조셉 리 기자

미주평안교회 이취임식 28일

창립 51주년을 맞는 미주평안교회가 4대 담임목사였던 임승진 목사의 이임식과 제5대 담임목사로 선출된 박병열 목사의 취임예배를 오는 12월 28일(주일) 오전 11시 거행한다.

이번 이취임예배에서는 박혜성 목사(남가주훼로쉽교회)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은퇴하는 임승진 목사는 지난 2013년 8월 송정명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15년간 사역해 왔다.

제 5대 담임목사로 취임 이하는 박병열 목사.

지난 4월 창립 50주년을 맞았던 미주 평안교회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신임 담임목사 취임으로 힘찬 도약을 기도하고 있다.

이취임식: 12월28일(주일)오전11시

극단 TAL 크리스마스 뮤지컬

극단 Tal이 오는 13일, 14일, 20일, 21일(토,일) 오후 5시 30분에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뮤지컬 〈너를 기다리며 Waiting for You〉(각본 및 감독 김영란)을 준비했다. 이 작품은 싱글맘이 딸을 키우면서 딸의 성장과 독립을 통해 점점 멀어져 가는 딸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

장소는 여디디야 교회 (양영준 목사, 13280 Studebaker Rd, Norwalk, CA 90065), 티켓은 25달러.

티켓 및 예약 문의: 562-282-2265

일시: 12/13,14,20,21(토, 주일) 5:30

인랜드교회 에버그린 문화원, 종강발표회

포모나에 있는 인랜드교회 에버그린 문화원(원장 이정자 권사)이 지난 3일(수) 종강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에버그린 문화원의 이번 학기 등록자는 162명으로 18명의 교사가 문화, 예술, 건강, 체육, 생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18개의 강의를 제공했으며 매주 오병이어팀이 식사를 섬겼다.

2026년 봄학기 개강은 3월 4일이며 등록에 대한 문의는 951-265-7066(이정자 권사) 혹은 951-202-2956(손은정 전도사)으로 하면 된다.

봄학기 개강: 3월 4일

주소: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문의: 951-265-7066

담임목사 이취임식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미주평안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 4대 임승진 목사의 이임과
제 5대 박병열 목사의 취임식을 거행하며 정중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임 임승진 목 사

취 임 박병열 목 사

일 시 2025년 12월 28일(일) 오전 11시
장 소 미주평안교회 본당
170 Bimini Place., L,A, CA 90004 (2가와 Vermont 인근)
연락처 (213)381-2202

미주평안교회 이취임식 준비위원회

*축하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화환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장학금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교협 성탄연합찬양제, 로티 문의 삶과 성탄의 의미

2025 동부교협 성탄 찬양제가 12월 7일 동부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됐다. ⓒ기독일보

성탄절과 연말을 앞두고, 연합찬양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것은 교회의 소중한 전통 중의 하나이다.

2025 동부교협 성탄연합찬양제가 12월 7일 오후 5시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에서 개최됐다.

1부 예배는, 우영화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쉐키나 찬양팀의 찬양,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기도,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로티 문 헌금'(빌 2:5-11) 설교, 홍충수 목사(동부교협 부회장 나성한미교회) 헌금기도, 최영성 지휘자(동부사랑의교회) 헌금 특송, 최현규 목사(동부교협 회장, 주님Church)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로티 문 헌금'(빌 2:5-11)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고승희 목사는 버지니아 귀족 집안 출신이란 특권을 내려놓고, 남침례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다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로티 문 선교사(Lottie Moon,1840 - 1912)의 삶을 통해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고승희 목사는 남침례교단의 해외선교 자금을 위한 선교헌금인 '로티 문 헌금'(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에 대해 나누었다.

"저희 교회는 남침례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남침례교단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로티 문 선교 헌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선교를 할 때 그것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모든 교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선교헌금이다."

"로티 문은 중국 선교사의 이름이다. 1912년 중국에 태평천국의 난에 이어,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 서태후가 하룻밤에 천명이 넘는 선교사를 죽였다. 중국 선교가 큰 어려움에 처하자 그는 자신이 먹으면 아이들이 굶는다며 금식했다. 그로 인해 건강이 무너졌다. 미국으로 후송되는 사이에 고베항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된다."

"그는 버지니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남부여성 중에 최초의 석사학위를 소지자였다. 좋은 학교의 교사로 청빙 받았고, 신학교 교수로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구혼을 받았다. 그때, 중국 선교사인 자신의 동생 에드모나 선교사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중국으로 갔다."

"여성이기 때문에 재능을 허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여성 선교사들의 그리스도를 위한 큰 포부를 막는 것은 현대 선교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급진적인 논문을 썼다. 선교 사역에서 여성 선교사의 완전한 평등을 요구했다. 그것을 글로 쓰는 바람에 물의를 일으켜 교육사역에서도 쫓겨났다."

고승희 목사는, 로티 문 선교사의 헌신으로 천 명의 중국인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목사님과 동역하며 천 명의 중국인들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었다. 그로 인하여 남침례교회의 중국 최대의 선교지가 되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선교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미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왔다. 그는 여러 침례교회를 돌면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이라 말했다. 크리스마스의 근본정신은 선교라고 말했다."

고승희 목사는 로티 문 선교사의 삶, 복음의 빛을 들고 오래전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들의 삶을 성육신 사건에 비춰 해석했다.

"로티 문 선교사는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다 가졌다. 남부 여인 중에 가장 고등교육을 받았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나,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 금식하며 버텼다. 그의 사인이 영양실조였다. 그가 모든 특권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힘든 중국 땅으로 내려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같다."

""오래전 한국은 어둠의 땅이었다. 여름에 홍수가 나면 화장실이 범람해서, 장티푸스로 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 병든 사람을 치료할 병원도 많지 않았다. 양반과 상놈으로 나뉘어졌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심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벌이 내려졌다.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로, 한강 백사장에서 103명이 하루 아침에 목이 다 잘렸다. 그런 나라에, 미국에, 캐나다에서 수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그러므로 한국에는 BC와 AD가 구별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해 내려갈 때,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갈 때,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AD와 BC가 나누어질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다."라고 전했다.

2부 예배는 손대륜 목사(동부사랑의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글로벌선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한미교회, 장로선교중항단, 아름다운교회, 주님Church, 동부사랑의 교회가 찬양하고, 최현규 목사가 광고한 후, 참석자들이 '오 거룩한 밤'을 찬양했다. 고태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밀알 자원봉사상 시상식 "사랑과 섬김에 감사합니다"

12월 7일(토) 새영교회서 총 43명에 자원봉사상 수여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사랑의교실을 비롯한 밀알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봉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12월 7일(토) '새영교회(담임: 정종섭 목사)'에서 진행했다. 올해는 금상 7명, 은상 24명, 동상 12명 등 총 43명의 학생들에게 밀알 자원봉사상이 수여되었다.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5일 남가주 OC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사랑의교실은 현재 전 세계 밀알선교단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핵심 사역으로 자리 잡아,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미주밀알선교단 산하 16개 지단, 2개 지소에서도 사랑교실을 통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현재 OC, LA, East LA, Irvine, Torrance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교실이 열리고 있고, Santa Fe Springs에 위치한 남가주 밀알 사무실에서 오전에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교실이, 또 오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반' 교실이 매주 진행되고 있다.

김민선 기자

밀알 자원봉사상 시상식 ⓒ 남가주밀알선교단

메리 크리스마스 & 축복된 새해 되십시오!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과 사업 위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따뜻한 성탄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과 보호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섬기는 보험 서비스

■ 자동차 보험
■ 주택/화재 보험
■ 비즈니스/상업용 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 맞춤 플랜 무료 상담

Shelly M. Lee
Insurance Agency
AUTO FIRE COMMERCIAL LIFE HEALTH
Agency License: OC45537

FARMERS INSURANCE

주소 : 3200 Wilshire Blvd #909., LA, CA 90010
문의 : Tel. 213-389-2904 Fax. 213-389-1329
이메일 : slee10@farmersagent.com

캘리포니아 신학 대학원 후원의 밤

지난 12월 8일 6시 부에나 팍, 로스 코요테 골프 클럽 소강당에서 캘리포니아 신학 대학원(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이하 CTS) 후원의 밤 음악회가 열렸다.

CTS 부학장 임창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후원의 밤 음악회는 이사장 심상은 목사(갈보리 선교교회 담임)와 학장 박병동 박사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심상은 목사는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되는 CTS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고, 학장 박병동 박사는 "이 음악회가 여러분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라며 맘껏 즐기는 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신학 대학원(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이하 CTS) 후원의 밤 음악회. ⓒ강태광 목사

이어서 만찬이 있었고, 만찬에 이어진 작은 음악회는 연말과 성탄절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곡이 연주되었다.

피아노 트리오가 찬양을 연주하고, 성악가 정수희 권사 '아 하나님의 은혜로'와 '여정'을 독창해 모든 참석자에게 은혜를 전했다. 작은 음악회였지만 큰 울림이 있는 수준 높은 음악이 발표되었다.

제3부는 후원의 시간이었다. 부학장 임창수 목사의 학교 사역 소개에 이어서 이사장 심상은 목사가 학교 후원을 요청했다. 심상은 목사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학교를 돕고, "신학생 장학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식물을 물위에 던지는 일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는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호소했다. 이날 70여 명의 후원자와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금을 작정하였다.

한편 지난 6월에 CTS 학장으로 부임한 박병동 박사는 30수년을 미육군 군종목사로 근무한 베테랑이다. 한인 군목으로는 초창기에 입대해 한인이 미군 군종 목사로 진출하는 길을 닦은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이다. 미군종 상황을 잘 아는 피터 강 목사에 의하면 박병동 군종 목사(Chaplain Paul Buck)는 동료 미군 군종 목사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였다. 지금도 매일 3마일 이상의 구보를 하며 기초체력을 다지는 박병동 박사는 성실과 겸손으로 미육군 군종 사역을 했듯이 CTS 신학교를 섬기며 차세대 사역자들을 세우고 있다.

부에나 팍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신학 대학원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교단 소속 신학교로 캘리포니아 교육법 94310 조항에 의거하여 가주 교육청 사립 고등교육국(BPPE)에서 인가를 받았다.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학교 홈페이지: agcts.com/
신입생 모집 및 신학교 후원 문의: 714)715-5999

말씀으로 선교지를 섬기는 월드쉐어 USA

성탄절, 연말연시 성경필사 및 암송 프로젝트 진행

극빈지역에 학원 선교에 집중하는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성탄절과 연말년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월드쉐어 USA는 12월 말까지 선교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필사(로마서)와 성경 암송(성경 요절 20절 암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쉐어 USA는 사순절과 성탄절 준비 기간에 선교지 어린이들에게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 성탄절부터는 성경 요절 암송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에, 이 단체에서는 성경 필사와 암송 챌린지에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학교를 위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후원 문의: 323 578 7933

월드쉐어 USA가 말씀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세운다. ⓒ기독일보

미드웨스턴 제78회 가을학기 졸업식

한국부 졸업생 58명 배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이 지난 5일(금) 제78회 가을학기 학위수여식을 거행됐다. 이날 총 269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한국부는 이번 가을학기에 박사과정 16명, 석사과정 20명 등 총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봄 학기 졸업생을 더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58명이 학위를 받았다.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과정을 마친 이창우 박사는 〈키르케고르의 생존재 (Saeng-existence) 교회론: 내면의 교회 생성과 형성에 관한 변증법적 현상학 연구〉를 통해 기존 조직·제도 중심의 교회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론적 교회론 모델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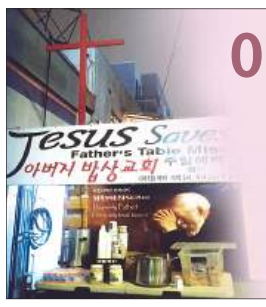
강신승 박사는 〈공공신학의 관점으로 본 Abraham Kuyper의 영역주권 사상과 Herman Bavinck의 유기체론 비교 연구〉, 신위재 박사는 〈하나님 왕국과 공동선: John Calvin부터 Miroslav Volf 까지〉를 연구했다.

이와 함께 미드웨스턴의 목회학(D.Min.), 교육목회학(D.Ed.Min.), 교육학(Ed.D.) 등 프로페셔널 박사과정 졸업생들은 실제 사역 현장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해 현장 사역에 기여했다.

남침례회(SBC) 산하 기관인 미드웨스턴은 ATS와 HLC의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원으로,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와 검증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부 (한국부와 중국부)에만 약 1,000명의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입학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 사무실(Tel. 816-414-3754, ks@mbts.edu) 또는 홈페이지(www.mbts.edu/ks)를 통해 가능하다.

기사 제공: 미드웨스턴 한국부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평생 심장 지킴이

황인용

심장 내과 주치의

OC지점 BUENA PARK로

이전합니다

11월 17일부터 진료 시작

진료 과목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마비
부정맥 · 심부전증 · 하지정맥류
심장 팍막질환 · 경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 질환 · 혈초혈관 질환

심장과 혈관의 검사 및 치료

심전도 · 심초음파 검사
경동맥 · 복부 대동맥류 검사
하지 동맥 / 정맥 검사

새롭게 이전한 프리미어 심장 혈관 클리닉,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최고의 진료를 경험하세요.

OC 지점 (온비치 빌딩 건너편)

5797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 760-9988

진료시간 안내
8 AM - 5 PM
월 / 화 / 목 / *토 (*격주)

LA 지점 (올림픽 한국 플라자 2층)

3130 W OLYMPIC BLVD, STE #250
LOS ANGELES, CA 90006
(213) 528-1111

진료시간 안내
8 AM - 5 PM
수 / 금 / *토 (*예약제)

황인용
따뜻한 심장 혈관 내과
PREMIER CARDIOLOGY VASCULAR INSTITUTE

초고령화 시대, 한국교회의 선교과제는?

한국선교신학회, 제6차 정기학술대회 열고 고찰

한국선교신학회(회장 허준)가 6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한국교회의 선교과제'라는 주제로 제6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병배 교수(감리교선교국 총무, 전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윤태 교수(대전신학대, 대전신성교회 담임)가 '시니어 제자훈련을 통한 시니어 목회전략과 사례연구: 신성교회를 중심으로' ▲이성곤 교수(장신대)가 '초고령사회와 돌봄의 선교: Care-as-Mission Paradigm(CMP)의 신학적 정립과 실천 전략' ▲김신구 박사(서울신대)가 '초고령화 시대 치매 환자를 위한 성육신적 접근과 돌봄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한국선교신학회 제6차 정기학술대회 참석자 단체 사진.

◆ "시니어 세대에 대한 맞춤형 전도 전략 절실"

김윤태 교수는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를 기점으로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시니어 세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시니어 세대는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경험, 가치관, 그리고 영적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도 전략이 절실하다"며 "기존의 목회와 전도 전략들이 젊은 세대나 가족 단위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급증하는 시니어 인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먼저, 시니어 세대에 대한 목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니어 세대는 교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인구 집단으로, 이들은 단순히 목회적 돌봄이나 관리의 객체가 아니다. 오히려 풍부한 생애 경험과 지혜, 그리고 시간적 가용성을 보유한 잠재적 사역자이자 목회 동역자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도 목회 프로그램의 방법론적 모색에 앞서, 시니어를 주체적인 복음의 일꾼이자 핵심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목회 철학의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둘째로 시니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자훈련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며 "연구는 소그룹 중심의 참여형 학습, 리더십 개발, 관계 중심의 전도 전략이 시니어 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재생산적인 전도 사역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지역 사회 섬김, 간증의 생활화, 디지털 미디어 활용 등을 훈련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복음의 접촉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니어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 전도 전략은 고령화 시대 교회의 선택적 대안이 아닌, 교회의 지속 가능성과 부흥을 위한 필수적 사역 방향"이라며 "이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시니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확립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강한 교회론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시니어 세대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돌봄 선교, 선교적 전환점 만드는 신학적 실천

이성곤 교수는 "초고령사회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신학적 도전"이라며 "연구의 핵심 논지는 첫째, 돌봄은 선교의 부수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본질적 방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취약한 조건과 존재론적으로 동일시하신 사건이며, 이는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행위가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례전적 경험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선교 패러다임(Care-as-Mission Paradigm, CMP)는 하나님의 선교, 성육신의 신학, 디아코니아, 그리고 돌봄 윤리라는 네 가지 신학적 토대를 통합하여 성육신적 동행, 취약성 기반 상호성, 공공참여라는 세 가지 상호구성적인 실천 요소를 도출하였다"며 "셋째로 국 교회의 노인 돌봄 사례들은 CMP가 실천 가능한 선교적 접근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특히 NHS 사회적 처방 시스템과의 협력은 교회가 사적 종교 영역을 넘어 공공복지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한국 교회가 CMP에 기초한 돌봄 선교를 실천할 때, 교회는 단순히 종교 의식을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위한 희망과 돌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초고령사회라는 새로운 선교적 상황을 향한 교회의 신학적으로 정당하고 실천적으로 긴급한 선교적 사명이며, 돌봄 선교는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선교적 전환점으로 만드는 신학적 실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치매 치료와 극복을 위한 세계공통방향, '인간중심케어'

김신구 박사는 "치매를 초고령 한국 사회에 나타날 복합적 사회문제로 보고 선교적 지역교회의 차원에서 치매 환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성육신적 접근과 돌봄 전략을 제시한다"며 "종합적으로 치매 치료와 극복을 위한 세계공통방향은 일상성·사회성·자율성·개별성·인력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케어이며, 대표적인 추진계획과 정책 방향도 대 국민적 보편 이해와 능동적이고 친화적인 환경 조성, 다각적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치매에 대한 세계공통방향과 결을 같이 하면서 지속가능한 교회적 접근을 위해서는 프로스트와 허쉬가 말한 성육신적 접근의 네 가지 주요 특징, 곧 동화·근접 공간·공동 프로젝트·자생 공동체에 기반한 여러 관련 유형과 사례 그리고 실제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장지동 기자

美 청소년 단체 FCA, 올해 성경 24만여 권 배포

미국 기독교운동선수협회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가 올해 24만4,000여 권의 성경을 배포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FCA는 올해 각종 행사와 모임을 통해 총 244,650권의 성경을 배포했으며, 이는 지난해의 21만 9,000권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FCA 대변인은 CP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성경 배포가 미국 전역과 68개국의 FCA 지부를 통해 이뤄졌으며, 특히 전 세계에서 열린 900여 개의 FCA 캠프, 2만3,000여 개의 허들(모임), 약 400개의 스포츠 클럽 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경 배포 성과에는 FCA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들은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스포츠 환경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코치와 선수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있다"며 "성경은 단순한 일회성 나눔이 아니라 장기적 제자훈련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FCA는 이번 성경 배포 캠페인이 코치와 선수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복음적 가치 실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참여(Engage) – 훈련(Equip) – 권한부여(Empower)'로 구성된 E3 전략을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대변인은 "FCA의 목표는 복음으로 코치와 선수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제자화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성경을 여러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든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FCA는 2019년 65주년 당시 약 19만 권의 성경을 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성경 배포 단체 중 하나"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늘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엘에이, 뉴욕, 시애틀, 하와이, 애틀랜타,

우리가 있는 곳이면

늘 한인사회를 먼저 생각했던 당신,

이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당®

JOINT and J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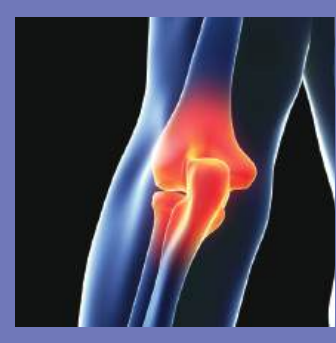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엔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당신의 관절
다시, 편안하게!"

귀생당 JOINT & JOINT는 연골과 관절의 핵심 성분인
천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을
주요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단,
2알씩
하루 2번

귀생당 JOINT & JOINT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인 보스웰리아, 터메릭, MSM의 천연 화합물을 엄선하여 재 구성함으로 관절, 연골 손상 예방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JOINT & JOINT의 효능과 효과

- 관절 연골과 기능 개선
- 혈액이 연골 내로 흡수되어 충격완화 기능에 도움
-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반응을 억제
- 항산화, 함염증 작용으로 염증억제, 통증 완화
-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여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

· SINCE 1975 ·
귀생당
KISEIDO U.S.A., Inc.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英 구세군, 5천여명 참석한 캐럴 콘서트로 성탄 복음화 사역 시작

구세군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연례 크리스마스 콘서트 ⓒ The Salvation Army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이번 주 대대적인 성탄 복음화 사역 'Shine Your Light 2025'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구세군은 5,000여 명이 참석한 'Celebrate Christmas' 캐럴 콘서트로 본격적인 성탄 사역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에는 춤과 합창 공연, 성탄 메시지, 그리고 구세군 인터내셔널 스태프 밴드가 연주한 'O Come, All Ye Faithful'의 장엄한 합창이 이어졌다.

영국·아일랜드 구세군 사령관 폴 메인(Commissioner Paul Main)은 "Shine Your Light 리더십팀을 비롯해 교단 및 시민사회 인사들을 로열 앨버트 홀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성탄 이야기 중심의 예배로 대림절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빛과 사랑을 지역사회에 비추도록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올 한 달 동안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각 지역에서 밝게 빛날 때, Shine Your Light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국 전역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세군 캐럴 콘서트는 성탄 시즌 영국 전역에서 이어질 수십 건의 복음화 행사 중 하나다. 올해 Shine Your Light에는 60개 이상의 교단과 기독교 단체, 자선기관이 참여한다.

오는 12월 10일에는 영국 복음주의 행사인 스프링 하비스트(Spring Harvest)가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캐럴 예배를 연다. 이 예배는 녹화 후 영국 각지의 교정시설과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12월 19일부터 스프링 하비스트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된다.

스프링 하비스트 책임자 조 모이어(Jo Moir)는 "이번 예배는 한 장소에서 열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국 전역에 희망과 기쁨이 울려 퍼지는 시간"이라며 "특히 교정시설과 도시·농촌 지역 사회에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e Your Light와 스프링 하비스트는 영국 교정선교단체 '프리즌 펠로우십'과 협력해 성탄절 이브와 성탄절 당일 영국 전역의 교정시설에서 캐럴 예배를 상영한다. 이를 통해 약 5만7천 명의 수감자가 복음을 접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노숙인 사역 단체 '그린 파스터스(Green Pastures)'는 전국 수백 개 숙소에서 이 영상을 상영해 더 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Shine Your Light에는 2,000개 이상의 교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년 사역과 직장 내 복음 전파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잉글랜드교회협의회(CTE) 사무총장 마이크 로열(Mike Royal) 주교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라며 "CTE는 가능한 많은 교회가 올해 캠페인에 동참해 기쁨과 평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미경 기자

이란 20대 여성, 학대 끝에 남편 살해… 유엔 "사형 중단해야"

ⓒSina Drakhshani/ Unsplash.com

이란에서 12세에 강제로 결혼해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 위기에 놓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란 정부에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며, 피해 여성의 인권 상황을 고려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란인권센터(CHRI)에 따르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 여성은 어린 시절 남성에게 팔려 가 수년간 학대를 받고 가족과 사법 체계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사건이 성차별과 인종적 소외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불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조혼과 장기간 학대가 초래한 비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형이 선고된 여성은 골리 코우흐칸(25)으로, 12세 때 사촌과 강제로 결혼한 뒤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결혼 이후 남편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해왔으며, 사건은 2018년 5월에 발생했다. 당시 남편이 다섯 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하자 코우흐칸은 친척을 불러 말리려 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코우흐칸은 남편 살해 혐의로 7년 전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이란 형법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형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유가족에게 100억 토만(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불법 체류 상태인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되며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100억 토만은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라며 "국가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견뎌온 여성을 처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유엔 측은 이란 정부와 사형 집행 중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이란 내 조혼 관행, 여성 인권 침해,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형평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국제사회는 코우흐칸 사례가 구조적 차별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사형 집행 중단과 공정한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3435 Wilshire Blvd. # 570(5F), L A, CA 90010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

www.gcjc.org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신승훈 담임목사

WORSHIP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전통예배)	8:00am
주일예배 2부 (영광예배)	10: 30am
주일예배 3부 (청년예배)	1:00pm
주일예배 GCEM (영어)	1:00pm
주일예배 라티노(스페인어)	5:00pm
교구모임 TEAM(20대 청년)	2:45pm
교구모임 JABEZ(30대 청년)	2:45pm
수요예배	7:30pm
금요예배	7:30pm
새벽예배(월~토)	6:00am

주님의 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E-Mail: glorygcjc@gcjc.org

기쁘다 구주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 14)

진유철 담임목사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www.lafgc.com

예배안내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30 본당
3부	오전 11:4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수요예배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본당
영아부예배(0-2세)	주일오전 9:30, 11:40 영아부실
유치부예배(3-5세)	수요일 오후 7:30 우치부실
유년부예배	주일오전 9:30(영어), 11:40(한국어) 구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AWANA) 구교육관
WG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30, 금요일 오후 7:30 영어중고등부실
JVT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11:30, 금요일 오후7 :30 한어중고등부실
청년 예배	주일오전 11:40 본당
EM예배	주일오전 9:30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신구교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30 신구교육관

LAFGC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 Tel. 323-913-4499
lafgcusa@yahoo.co YouTube유튜브 채널 – '나성순복음교회' @LAFGCTV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오명찬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인영어예배(EM)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금요 어노인팅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KM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1:00
EM 대학부 모임 주일 오후 2:00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중등부, 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 4:00

웨스트힐장로교회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884-2391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김경진 담임목사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예배 2부 오후12:00
다음세대(청년부) 오후2:00
주일학교(유초등부) 오후12:00
중고등부 오후12:00
주중 새벽기도회 오전5:30(온라인)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6:00

방송안내

YOUTUBE (검색어: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기쁜우리교회

기쁜우리교회

평화와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Merry Christmas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담임목사 구 봉 주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30

YDC한어대학청년부
4부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Email: tkcoffice1983@gmail.com
T. (714)521-0991
http://thanksgivingchurch.com/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CHURCH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이충환 담임목사

예/배/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e-mail : iccc.office1@gmail.com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CCC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금요찬양예배 7:00 P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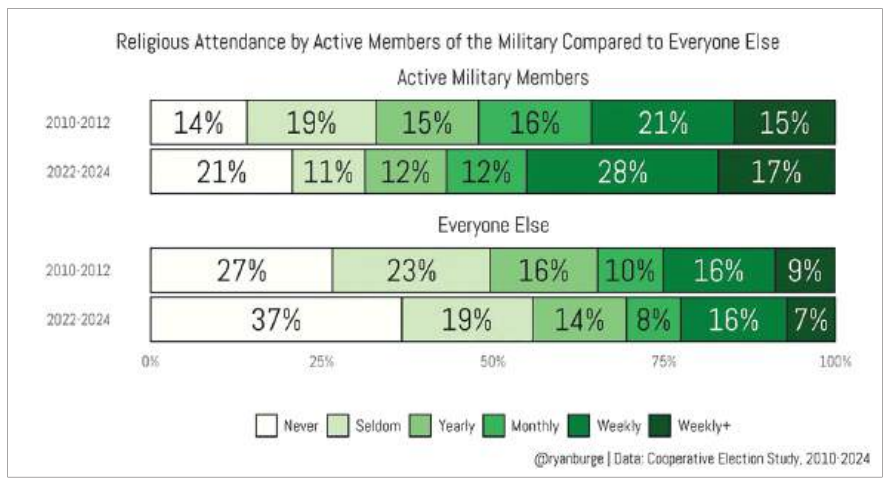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사회는 세속화되는데, 군인들은 더 종교적으로 변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군인과 민간인의 예배 출석율의 변화를 비교해서 나타낸 표.
ⓒwww.graphsaboutreligion.com

미국 사회 전반이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서는 오히려 종교 참여와 신앙 의식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워싱턴대학교 존 C. 댄포스 센터의 라이언 버지(Ryan Burge) 교수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인기 웹사이트 'graphsaboutreligion.com'에 관련 연구 데이터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군 복무자들의 주 1회 이상 예배 출석 비율은 2010~2012년 약 21%에서 2022~2024년 약 28%로, 한 주에 여러 번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도 15%에서 17%로 상승했다. 또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군인은 같은 기간 39%에서 44%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 민간인의 예배 출석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추세였다. 민간인의 주 1회 이상 예배 출석 비율은 약 16%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 주에 여러 번 출석하는 비율은 9%에서 7%로 줄었으며,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도 37%에서 30%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무종교층 증가와 세속화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 군 복무자 집단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 미 의회 보고에 따르면, 현역 군인의 약 70%가 기독교(가톨릭·개신교 포함) 소속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인원은 '기타 종교', '무종교', 또는 '미확인'으로 기록되며, 비기독교 종교 인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군 지원자 다수는 미국 남부·중남부 등 보수적·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지역 출신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적 신앙이 활발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종교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군 복무자 집단에 다수 포함된다. 버지 교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군대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오는 구조적 선택 효과"로 해석한다. 즉 군대가 '반세속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 흐름에서 벗어난 특정 집단이 군 복무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군대는 선거일에 우파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모집이 더 수월하다. 그 지역들은 종교 활동도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며 "군대가 남녀들을 신앙 공동체에 더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서를 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아주 특정한 하위 집합"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Jesus Music Festival 2025' 오키나와 성료

공연 현장의 모습.

세계 공통 언어인 음악을 통해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대규모 연합 선교 행사가 오키나와에서 열렸다. 'Jesus Music Festival 2025 in Okinawa'는 나하 문화예술극장에서 개최됐으며, 일본 전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자리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DCEM이 주관하고 순복음일본총회와 순복음동경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부터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전국 각지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다. 약 1,500명의 참석자들이 가족 단위로 참여했으며, 오키나와현 내 30여 개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 협력하며 행사를 준비했다. 이러한 연합 준비 과정은 일본 교회가 직면한 영적 현실 속에서도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예배는 1부 음악회와 2부 설교 집회로 진행됐다. 1부 무대에서는 순복음동경교회 마이 앙상블이 아코디언과 기타, 타악기 연주로 찬양을 선보였다. 이어 19명으로 구성된 살롬 하프팀이 맑고 투명한 선율로 은혜를 더했다. 총 13개 팀이 순서에 참여해 찬양과 간증, 연주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현장 성도들은 뜨거운 호응으로 화답했다.

2부 예배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요 4:13-15, 7:37-3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 겪었던 영적 목마름을 일본 사회의 공허함에 비유하며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질과 명예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며 성령 충만을 강하게 선포했다.

이 목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기를 바란다"며 "10배, 100배의 부흥이 일본 땅에 일어나기를 축복한다"고 선포했고,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 속에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이영훈 목사는 올해를 '일본 선교 집중의 해'로 선언하고 전방위적인 선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는 오키나와 대성회를 시작으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말씀집회와 지도자 세미나, 연합 기도회, 성령 부흥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전략에는 일본 순복음교회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리더 양성, 지역 교회 활성화를 위한 성령운동 확산, 문화·예술을 통한 복음 접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일본 교회를 향해 "선교의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며, 일본은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땅"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승연 기자

어린아이도 참되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프레드 프라이의 기고글인 '어린 아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Can a young child become a Christian?)를 6일 게재했다.

프레드 프라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 복음화 사역 단체인 아동 복음화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CEF)의 행정 부대표(Vice President of Administration)로 섬기고 있다. CEF는 2024년 한 해에만 대면 사역으로 2,74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프레드는 2003년 펜실베이니아 현지 지부 책임자로 CEF에 합류했으며,

프레드 프라이. ⓒChristian Post

이후 버지니아 주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 후 미국 사역(USA Ministries)을 이끌도록 초청받았고, 2024년부터는 행정 부대표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어린아이가 정말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 수 있을까? 그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한 기독교 교육자는 한 어린이의 믿음을 대략 12세까지를 "빌린 믿음(borrowed faith)"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믿음은 부모나 주일학교 교사에게서 '빌려온'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면 "선택한 믿음(chosen faith)"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것으로 소유한 믿음(owned faith)"으로 나아간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빌린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도 생각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면, 구원을 그 위에 기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린아이의 구원에 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1-4).

여기서 제자들은 필자가 처음 던진 질문과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 궁금해 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다. 이 아이가 정말 '어린' 아이라는 사실에 의문이 든다면, 헬라어 단어 paidión은 "어린, 작은"을 의미한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부르신 것이다. 당시 문화에서 13세는 이미 성인 남성으로 간주되었고, 16세에 결혼하던 시대다. 그러니 '어린아이'라고 부르면 말 그대로 아주 어린아이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곧바로 '누가 큰가' 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얘들아, 천국에서 누가 큰지 말하기 전에, 먼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처럼 변화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겸손'이라는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교만이 회개와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한다. 이제 마가복음 10:13-16을 보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니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리하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믿음이다. 어린아이가 믿음에 대해 논문을 써오는 일은 없지만, 진리를 들으면 단순히 믿음으로 반응한다.

성인인 우리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누구의 믿음을 빌리는가?

어른인 내가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설명을 알고 싶어 하는 내 욕구를 내려놓고, 단순히 예수께 신뢰를 두는 것이다. 물론 생각을 중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내 노력은 모두 내려놓고 예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그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다. 나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다!

최승연 기자

엘리베이션교회, SEU와 손잡고 2026년 '엘리베이션 칼리지' 출범 예정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대형교회 엘리베이션교회(Elevation Church)가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의 사우스이스턴대학교(Southeastern University, SEU)와의 협력을 통해 2026년 가을 '엘리베이션 칼리지(Elevation College)'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교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역의 소명을 느끼는 전통적 대학 연령대의 학생들이 엘리베이션교회에서의 실습 경험과 함께, SEU의 인가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는 관심 있는 이들에게 조기 지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우스이스턴대학교는 예수교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계열의 기독교 사립대지만, 다양한 교단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측은 "캠퍼스에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비(非)교단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사명 아래 신앙적 공통점을 기쁘게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SEU는 미국 전역 200여 교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 SEU 사역 네트워크(Ministry Network)를 통해 '고등 교육과 지역 교회 중심의 실습'을 결합한 교육 모델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교회에서 학위를 마친 학생들은 SEU 명의의 졸업장을 받게 된다. 엘리베이션교회는 이미 SEU와 함께 '엘리베이션 교회 사역 리더 과정(Ministry Leaders Series)'을 운영하며, 성경해석과 문맥 연구 등 사역자 훈련을 제공해 왔다.

한편, 이 교회는 지난해 6월 미국 남침례회(SBC)와의 20여 년 협력 관계를 종료했다. 당시 교회는 공식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남침례회 총회에서 '여성의 모든 형태의 목사 직무 금지' 결의가 통과된 것이 배경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Boyce College의 성경학 교수 데니 버크(Denny Burk)는 "이번 탈퇴는 뉴올리언스 총회에서 나온 명확한 결정의 영향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후12: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어노인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충환 담임목사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주일학교 오전 11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금요예배 저녁 7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래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애벗 주지사 "보수 가치 교육 필요" 텍사스 학교들 TPUSA 지부 확산

그렉 에밧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 주지사 페이스북

미국 텍사스주 전역의 수백 개 학교가 보수 성향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TPUSA)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애벗 주지사는 9일(이하 현지시간) 주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PUSA의 고등학교 조직인 '클럽 아메리카(Club Americ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PUSA는 2012년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가 설립한 청년 단체로, 커크는 지난 9월 유타주 한 대학 행사 중 피살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 조시 티포 TPUSA 선임국장, 마이크 모라스 텍사스 교육청(TEA)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 내 500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이미 클럽 아메리카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텍사스 지역에도 수십 곳이 포함된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부가 텍사스에 있다"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21세기 들어 지금처럼 TPUSA와 클럽 아메리카 같은 조직이 절실했던 때는 없었다"며 "이들은 도덕적 명료성, 헌법적 원칙, 국가의 설립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텍사스의 미래 지도자가 될 청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서 애벗 주지사는 보수 운동 확산과 청년층과의 소통에 기여한 찰리 커크의 공헌을 기리며, 주정부는 클럽 아메리카가 "확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학생들의 지부 설립을 방해하는 학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벗 주지사는 "클럽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학생들이 조직할 권리는 분명하다"며 "어떤 학교든 클럽 아메리카 활동을 방해하면 즉시 텍사스교육청에 신고돼야 하며, 적절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TPUSA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클럽 아메리카를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적 가치를 위한 선도적인 청년 운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1,200개 이상의 고등학교 지부가 활동 중이며, 학생 리더들이 '재정 책임, 자유시장, 제한된 정부'라는 보수 원칙을 홍보하도록 돕고 있다.

텍사스는 TPUSA와 협력해 주 전역의 학교에 지부 설립을 확대하려는 첫 번째 주가 아니다.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당시 오클라호마 주 교육감이던 라이언 월터스도 지난 9월, 클럽 아메리카 설립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월터스는 "오클라호마의 모든 고등학교에 클럽 아메리카 지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올해 9월 말 교육감직에서 사임했다.

이미경 기자

'英 국교는 기독교' 언급했다 직업 잃은 교사… FSU "상식 무너져"

영국의 한 기독교인 초등학교 교사가 "영국은 여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아동 관련 직종에서의 근무까지 금지된 사건과 관련해, 자유언론연합(FSU)이 해당 교사의 방어에 나섰다.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교사가 남학생 화장실에서 발을 씻는 학생들을 제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학교는 특정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공립학교로, 운동장에서의 기도 행위를 비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다만 종교적 실천을 위한 별도의 기도실은 제공하고 있다.

교사는 규칙을 어긴 한 무슬림 학생에게 이를 상기시키며, 학교 규정이 불편하다면 약 1마일 떨어진 이슬람 학교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영국은 국왕이 수장인 국교회를 가진 국가로서 '기술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이후 교사는 6학년 학생들에게 '관용'이라는 영국 핵심 가치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 이슬람은 소수 종교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지난해 3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해고됐고, 그해 4월에는 아동보호위원회와 런던경찰청에 사건이 회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혐오범죄로서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과는 없었다. 그러나 교사는 "이슬람에 대한 발언으로 학생에게 정서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처분을 받았고, 이는 이후 항소를 통해 뒤집혔다. 현재 그는 지방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FSU의 디렉터 영 로드(Young Lord)는 "이 교사는 단지 잉글랜드의 국교가 성공회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말한 것만으로 직업을 잃고, 평생 교직에서 배제될 뻔했다"며 "교사가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보호 위험 인물로 규정된다면 영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그가 '영국의 공식 종교는 이슬람'이라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전기세 50~90% 절감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구봉주 칼럼

Always Fresh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는 의미 라기 보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 영감이 넘치는 사람과 교제 가운데, 지식과 성품을 배우고, 인사이트와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보다 영적이고 신앙적린 누군가와 잠시 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최근에 COSTA 강사로 뉴질랜드를 짧게 한 주간 방문하였습니다. 잠시 코스타를 소개해드리면, 코스타는 40여 년 전, 미국 워싱턴 근교, Summit Lake에서 시작된 재외 한인 유학생 복음화 운동입니다. 당시에 강사로 섬기셨던 분들은 옥한흠, 하용조, 이동원, 홍정길 목사님이셨으나, 현재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 낸 신실한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수천명의 강사들이 로테이션으로 전세계에 개최되는 코스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뉴질랜드 코스타는 지난 20년 동안 쉼 없이 코스타 모임이 있어왔던 지역입니다. 사실, 코스타도 코스타지만,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처음 가보는 나라여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회 강사라 할지라도 모든 순서에 참여하며, 매일 틈 날 때마다 청년들을 상담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마지막 출국하는 날 잠시 2-3시간 해변을 둘러본 것 외에는 오로지 영적인 일들에 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을 통해 제게는 영적으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코스타를 섬기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은 300여명이 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열정과 순수함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10여 년 정도 하는 와중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목회도 무척 행복하지만, 청년 사역 때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당시 저도 그리고 제가 섬겼던 청년들도 젊어 열정과 순수함이 넘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청년들의 열정과 순수함을 느끼니, 저의 신앙이 다시 신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 집회 때마다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며, 안수기도를 하니,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에 다시 불붙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랜만에 영혼들을 위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감사했던 일은 여러 강사님들과 만나 교제를 나누면서, 많이 배우고 도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뿐 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집회에서 듣는 간증 외에 사석에서 들려지는 그분들의 삶의 간증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강사님들 모두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영감을 얻었고, 어떤 분에게는 영적 인사이트를 받았으며, 또 어떤 분에게는 도전을 받았으며, 어떤 분은 감사한인교회에 모셔서 성도님들에게 그분의 간증을 꼭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상담을 하였던 청년들에게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정말 모든 만남이 축복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느 때와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보통 고된 사역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아, 이제 끝났다. 좀 쉬어 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침과 피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흥분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제 신앙을 다시 refresh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인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신앙적인 고립은 위험합니다. 영적인 만남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으로 귀한 분들, 탁월한 분들을 만나십시오. 배우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영적 원리를 붙잡으시 때, always fresh 항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선함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준민 칼럼

무명의 소녀에게 배우는 아름다운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아틀랜타 섬기는교회에서 나아만 장군을 구원한 무명의 소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는 전쟁 중, 아람 땅에 사로잡혀 온 포로였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이별을 낳습니다. 그녀는 부모와 친척, 친구를 떠나 낯선 땅 아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상상해 보아도, 그녀가 겪었을 두려움과 외로움, 좌절과 낙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낙담한 모습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었고,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삼하 5:1).

나아만이 존귀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아내 역시 존귀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을 시중드는 여종으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의 거룩한 상상력을 더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무명의 소녀에게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혜는 긍정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긍정적인 태도로 섬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분명 슬픔과 그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을 이겨내고 여주인을 밝고 맑은 얼굴로 성심껏 섬겼습니다. 만약 그녀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다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분위기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여주인은 수많은 종들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부지런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영혼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안의 불평을 기적으로 바꾸는 조용한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지혜는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머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 속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머무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린 소녀는 머무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할 때, 머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는 "거룩함은 장소에 있지 않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녀는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바꿀 수 없는 일에 매달려 많은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쏟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만큼 성숙했습니다. 리처드 로어는 "성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넷째, 지혜는 성심을 다한 사랑에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성심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사랑처럼 아름답고, 사랑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사랑하며 섬겼고, 나아만 장군의 고통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관찰을 낳습니다. 그녀는 관찰하는 중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여주인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왕하 5:3).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여종이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큰 사랑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배우는 지혜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명의 소녀처럼, 우리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중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2025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4)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곽찬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11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5838 Magnolia Ave, Whittier, CA 90601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11330 166th St, Cerritos, CA 90703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i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상현 담임목사

남가주 주안에교회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0005 Cole Rd, Whittier, CA 90603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818)579-5161

주일예배 오후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10:30
EM 예배 오전 10:3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2440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놀웍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 (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9295 Magnolia Ave STE 201, Riverside, CA 92503
T. (909)247-7355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후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0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6031 Beach Blvd, Buena Park, CA9021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매일저녁기도회 (월-토) 오후 9:00

김요한 담임목사

LA성암교회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언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641 S Western Ave, Anaheim, CA 92804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1:00
EM교육부 오전 11:00
화요예배 오후 7:30
금요EM 오후 7:00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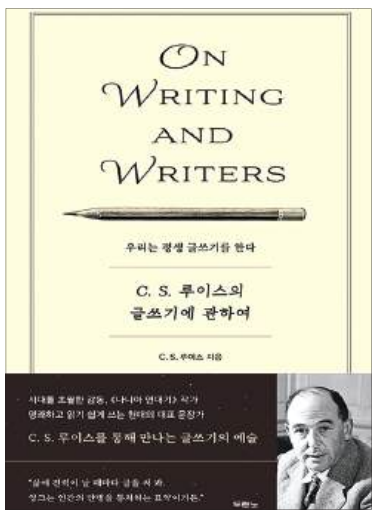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C. S. 루이스의 글쓰기 조언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저자가 말하는 글쓰기



C. S. 루이스의 글쓰기에 관하여

C. S. 루이스 | 윤종석 역 | 두란노 | 236쪽 | 15,000원

SF, 문학 평론, 신학, 회고록, 시 등 다양한 장르 넘나들며 통찰력과 상상력, 필력 인정받았던 루이스의 글쓰기 철학과 필법을 한 권에 담았다

작가들은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할까?

우리는 왜 글을 쓸까?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

설득력 있게 쓰려면?

비평을 할 때 주의점, 글을 쓸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무엇일까?

깊이 있는 고민이 글줄과 행간마다 펼쳐진다

C. 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와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으로 잘 알려진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 하나다.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로 오랜 시간 가르치며, 탁월한 문학적 실력으로 20세기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많은 지성인들과 대중의 마음에 깊이 있게 기독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루이스가 가진 신학이 성경에 충실했는지 여러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가 평생 술과 담배를 즐겼다는 점도 경건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지 의문을 남긴다. 하지만 무신론자에서 참된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가 설명한 기독교를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두란노에서 출간한 『C. S. 루이스의 글쓰기에 관하여』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다. 원서 제목은 『On Writing and Writers』인데, 이 책이 '글쓰기'뿐 아니라 '저자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

첫째로 흥미로웠던 점은, 루이스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독자에게 답장했다는 것이다. 하루에 무려 35통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날엔 편지에 답장하는 데 14시간이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7쪽).

우리는 이 책에서 그가 '글쓰기에 관하여' 조언한 편지의 몇몇 문장들을 발견하는데, 능숙하고 실력 있는 문학 교수에게 글쓰기 비법을, 그것도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얻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든다.

루이스는 또한 장르별(소설, 시, 어린이를 위한 동화, 공상과학소설, 기독교적 글) 글쓰기에 관해 조언을 하고, 다른 작가가 쓴 여러 작품에 관하여 개인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부록으로는 루이스가 언급한 여러 작가에 관한 짤막한 소개가 실렸다.

"글을 쓸 때 네가 묘사하는 대상에 대해 독자가 느꼈으면 하는 감정을 그냥 형용사로 말해 버리지 마라. 무언가가 '끔찍하다'라고 단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끔찍함을 느끼게끔 그걸 묘사하렴(15쪽)".

어떤 독자에게 조언한 이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설을 쓴 그가 좋은 본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가 어떻게 신자를 유혹하고 괴롭히는지 생생하게 묘사하여 독자가 직접 느끼게 한다.

루이스는 또한 좋은 작가가 되려면 "라디오를 끄라"고 조언했다. 오늘날로 하면 '스마트폰을 끄라'고 했을 것이다. "눈으로 쓰지 말고 늘 귀로 쓰라"고도 조언했다. 듣기 좋은 글이 될 때까지 계속 수정하라는 것이다.

"네 진짜 관심사에 대해서만 쓰고 그 밖의 것은 쓰지 마라"고도 권했다. 글을 써야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이다.

"문체를 개발하"려면 "①본인이 하려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②만전을 기하여 정확히 그것만 말해야 합니다(25쪽)"라고 답변했다. 명료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연습, 연습, 또 연습이 필요해"라고 권면하며 꾸준히 노력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C. S. 루이스는 목사나 신학자가 아니라 작가다. 그는 기독교적 글쓰기 조언에서, 기독교적 요소를 확실히 넣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권한다(132쪽). 이것은 목사나 신학자가 할 수 있는 조언이 아니다. 목사 또는 신학자는 최대한 기독교적 요소를 확실히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다르다. 작가는 문학이라는 장치를 통해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예술가다. 그래서 루이스의 작품은 정확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교리를 상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직접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루이스의 문학 작품을 통해 기독교 교리를 새로운 시각과 깊이로 맛볼 수 있지만, 그의 저작들을 통해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는 주의해야 한다.

ⓒ픽사베이

판타지나 공상과학 소설에 관한 루이스의 입장은 분명했다. 톨킨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을 극찬한 루이스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시도'라고 이 장르를 비판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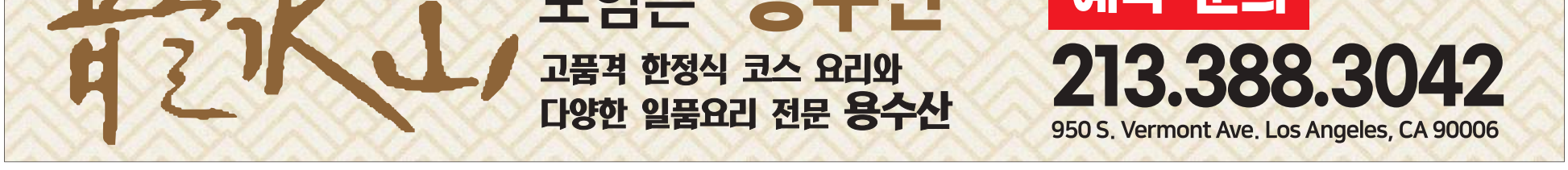
기독교 서적은 동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매우 현실 이야기를 다룬다. 〈천로역정〉 정도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랑하는 판타지 소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 또한 은혜로운 선물이다. 사람이 초현실을 기대하는 이유는 현실 너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묘사하는 현실 또한 성령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고, 성경이 약속한 미래도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으로 주어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영감받은 환상,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만든 상상력의 저작물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C. S. 루이스가 글쓰기와 저자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평생 글쓰기를 한다"는 이 책의 부제에 공감하는 모든 독자에게, 『C. S. 루이스의 글쓰기에 관하여』는 유익한 자원이 될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마음을 잇다: 루오, 고흐, 슈말츠

깨어진 존재들의 공감에 뿌리내리는 '기독교 미학'

하나님 나라 추구 그리스도인 세상 더 잘 알고자 함 필요해
'정복하고 다스리라' 는 말씀, 샬롬 비전 구현 구체적 행위
피조계 돌보라는 명령 완수
깨어짐 속 빛나는 존재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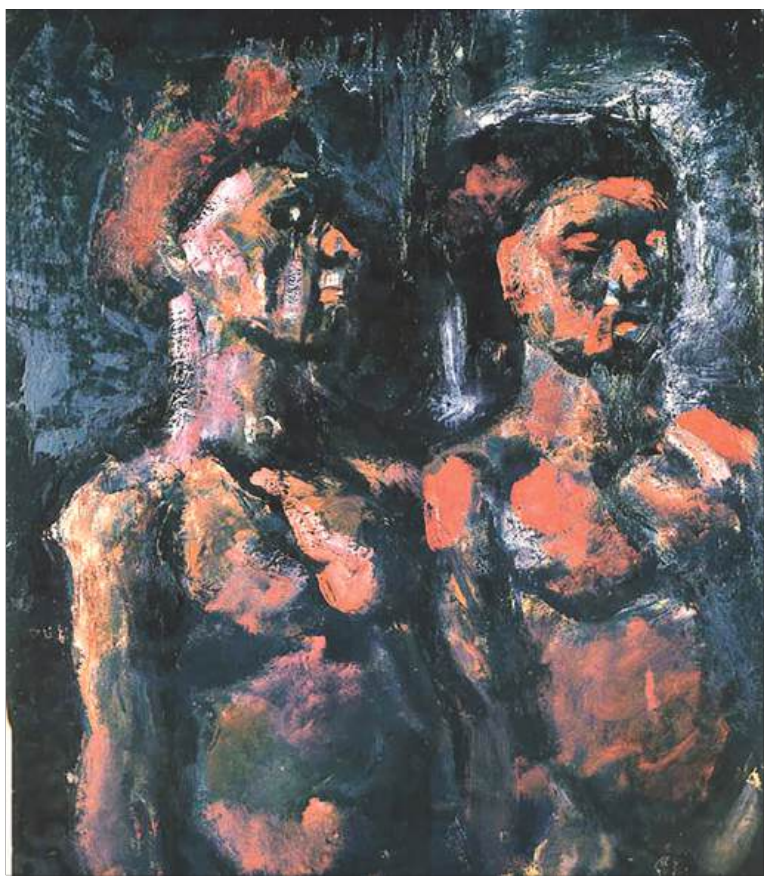
▲티모시 슈말츠, 부지 중의 천사, 브론즈, 2019, 성베드로 광장.

기독교 미학의 특징 중 하나는 '이상화된 미'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예술은 고전 미술에 나타나는 선남선녀를 기준으로 삼는 대신, 아름다움과 추를 함께 본다.

멜 깁슨(Mel Gibson)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2004)는 극사실적 묘사의 잔혹성 때문에 논란을 빚었지만, 추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빛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것의 명백한 예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장 모욕적·충격적인 죽음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빌립보서 2:6-7)."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추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믿으며, 그런 믿음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를 재구성한다(Theodore L. Prescott, The Bodies before Us, in Broken Beauty, Willia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23쪽).



▲조르주 루오, 매춘부들, 캔버스에 유채, 1909.

인간의 깨어짐은 추를 탄생시킨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곤경에 빠진 인간을 귀히 여기셨다. 그분은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 귀머거리들이 사방에서 오는 것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고, 또 그들의 고통을 나누셨다(마태복음 14:14).

그리스도는 외모가 지닌 추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보셨다. 크리스천 작가들이 특정한 양식이나 운동을 표방한 적은 거의 없지만, 그들에게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있다. 인간 생활 속에 아름다움과 깨어짐이 혼합되어 있다는 공감적 증거에 대한 주목이 그러하다. 이런 공감적 시선이 타자를 낯선 이가 아니라 이웃으로 보게 만든다.

- 조르주 루오의 낮은 자리

프랑스 화가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가 어느 날 베르사유 콜레르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우연히 홍등가의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몸 파는 여인을 보게 되었다. 화실에 돌아온 루오는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이른바 '매춘부 연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화가는 매춘부들을 추하거나 음탕하게 그리지 않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성들이 자주 등장했고, 축 늘어진 동작에서 그들이 견뎌야 했던 가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심기가 불편했다. 루오가 불경하고 추악한 것에 도취됐으며, 양심을 잃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인상'이나 '천사' 그림만을 미술의 전형으로 인식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루오는 죄로 뒤덮인 현실에 주목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 여성들이 희생된 것으로 여겼으며, 그에 대한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루오는 인간이란 죄의 굴레를 진 존재이며, 그런 현실의 직시와 구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의 작품에는 매춘부들의 비참함에 자신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흐르고 있으며, 그는 "모든 사람이 만사의 공범자며 그 중 내가 주모자다"라는 도스토옙스키(Dostoevskii)의 사상에 크게 공감하였다.

- 반 고흐, 타자와의 연대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을 그림 주인공으로 삼았다. 구빈원 사람들, 뜨개질을 하는 아낙네와 직물을 짜는 직공, 쟁기를 든 농부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농촌화가 밀레의 작품에 대한 감동, 런던의 주간지 『그래픽』 삽화의 영향으로 빈민과 약자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

특히 루크 필즈(Luke Fildes)와 헤르코머(Herkomer) 등 『그래픽』의 화가들은 빅토리아 시대 하층민들이 겪고 있던 곤경을 적나라하게 표현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실재를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제작한 것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다.

동료 화가 A. 라파르트(Anton Rappard)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힐난했을 때, 고흐는 다음과 같이 논박했다. "농민화를 관례적으로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일 거야.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야 좋지.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밭에서는 밀이 익어가거나 감자나 퇴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건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할 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1884. 4. 30)?"

▲반 고흐, 감자 먹는 사람들, 81.5 x114.5cm, 캔버스에 유채, 1885.

고흐는 비례와 묘사 등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그 예술이 인간에게 어떤 관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주목했다. "사랑은 신비 안의 신비이다. 그것은 결코 문자적 의미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바다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썰물과 밀물처럼 변하는 것이다(1883. 2. 8)." 그는 생생한 현실의 인간을 포착하고, 그들과 깊은 연대 속에서 살았다.

- 티모시 슈말츠의 '부지 중의 환대'

티모시슈말츠(TimothySchmalz)는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부지 중의 천사〉(Angels Unaware)를 성 베드로 광장에 설치했다. 난민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 속에 성가족,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난민 대열에 포함시켰다.

그의 작품은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브리서 13:2)"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군상의 중심에는 천사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이동중인 난민들이 무리를 지어 있다. 작가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찾아온 천사들을 대접하였듯이, 피부색이나 문화, 국적과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을 섞어놓았다. 무슬림 옆에는 유대인, 그 옆에 아일랜드인, 또 그 옆에 아프리카인이 있다. 아브라함 헤셀(Abraham J. Heschel)은 "만일 내가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뇌, 인간의 불행을 덜어준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돕는 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 이집트로 피해야 했다. 일찍이 난민 생활을 겪으셨던 셈이다. 이 작품은 특별히 희망이 내려앉고 빛이 사라지는 위태위태한 인생에 집중하게 만든다.

- 마음을 잇다

세 작가의 작품에서 성공한 인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주변부에서 홀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타자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자세(Max Scheler)"가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더 잘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우리의 세상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처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성록 명예교수

"美 목회자 3명 중 2명, 설교 준비에 AI 활용" 챗GPT · 그래머리 최다 사용

미국 교회 지도자들의 다수가 설교 준비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ChatGPT와 Grammarly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AiForChurchLeaders.com과 Exponential AI NEXT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5 교회 내 AI 현황 보고서(The 2025 State of AI in the Church Survey Report)'는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ChatGPT는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수행하고 다양한 질문에 답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는 가장 대중적인 생성형 AI"라며, "교회 지도자의 26%가 사용 중이며 설교 준비, 연구, 교회 커뮤니케이션 작성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에는 목회자와 교회 직원 594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설교를 준비하는 교회 지도자 중 약 3분의 2가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AI가 주간 설교 준비의 핵심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AI 사용 빈도도 증가했다. 응답자 중 61%는 AI를 매일 또는 매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4년(43%)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25%는 AI를 '매일' 사용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회는 AI가 사역에 유익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인간적 연결과 영적 분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도구는 ChatGPT(26%)였으며 그 뒤를 이어 Grammarly(11%), Microsoft Copilot(9%), Google Gemini(8%), Canva Magic Studio(8%)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mmarly는 이메일, 뉴스레터, 블로그 등 교회 커뮤니케이션 수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Copilot과 Gemini는 연구용, Canva는 소셜 미디어·행사 포스터 디자인 작업에 널리 쓰인다.

인공지능 AI(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연구진은 "일부는 AI 활용을 우려할 수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연구 효율과 창의성 향상이라는 이점을 보고 있다"며 "AI가 발전함에 따라 목회자 고유의 음성과 영적 통찰을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답 교회의 규모도 다양했다. 전체의 30%는 100명 미만 교회, 24%는 100~249명, 14%는 250~499명, 11%는 500~999명, 14%는 1,000~4,999명, 2%는 5,000~9,999명, 그리고 2%는 10,000명 이상 대형교회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은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였다.

목회자들이 꼽은 주요 우려 사항은 △AI가 생성하는 비정확한 정보와 신학적 오류 △인간적·영적 돌봄의 약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AI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응답자의 87%는 AI 관련 교육을 자신과 교회 직원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AI 교육과 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윤리적 고려를 반영한 명확한 정책과 체계를 마련할 경우 교회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초 신앙·비영리 단체 기부 결제 및 참여 솔루션 제공업체 '푸시페이(Pushpay)'가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는 교회 전반에서 AI 사용이 지난해 대비 80% 증가했으나, 여전히 설교나 목회 콘텐츠 제작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이메일, 이미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작성 등 커뮤니케이션 작업에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미경 기자

"인도 기독교인 대상 폭력 500% 급증… 2천명 집결해 국가적 대응 촉구"

인도 전역에서 약 2,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최근 뉴델리로 모여 종교 소수자인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폭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증가에 항의했다. 집회 연사들은 2014년 이후 기독교인 대상 폭력이 500% 증가했음에도 대부분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이하 현지 시간) 열린 '전국 기독교 대회(National Christian Convention)'에는 200여 개 교단과 시민단체, 법률가들이 참여해 인도 헌법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연대·정의·희망을 촉구했다.

주최 단체 중 하나인 '연합 기독교 포럼(United Christian Forum)'은 2014년 139건이던 기독교인 대상 폭력 신고는 2024년 834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약 5,000건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2014년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이 중앙정부 집권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대회 참가자들은 박해받는 기독교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전국 선언문을 작성해 대통령, 총리, 대법원장 등에게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보고된 사건에는 살인도 포함된다. 2016~2020년 사이 최소 21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으며, 라자스탄에서는 한 목회자가 고의적으로 감전사 당했다. 2024년에는 차티스가르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한 남성이 주민들에 의해 살해됐지만 경찰은 사건을 토지 분쟁으로 처리했다. 2025년 1~9월 사이에도 579건의 폭력이 보고됐으나, 실제 형사 고발은 39건에 그쳤다. 차티스가르 바스타르 지역에서는 기도 중이던 임신부가 폭행을 당해 유산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경찰 방관과 보복 위협으로 인해 93%의 사건이 처벌 없이 끝난다"며 심각한 법 집행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부족(tribal)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의 매장권이 부정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2025년 오디샤주에서는 20세 사라반 곤드의 장례가 마을 주민들에게 막혔고, 결국 가족은 시신을 파내도록 강요당한 뒤 마을을 떠났다. 시신은 이후 행방이 사라졌다. 달리트(기존 '불가촉천민') 기독교인의 장례 거부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 가족은 고등법원에 호소했지만 구제가 되지 않아 대법원까지 가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부족 신분(예약제 혜택)을 개종 시 박탈하려는 움직임도 확산 중이다. 오디샤의 한 지역에서는 기도 모임 중 두 명의 부족 여성 기독교인이 힌두 민족주의 단체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폭행당했다.

12개 주에서 시행 중인 반개종법도 악용되고 있다고 참가자들은 주장했다. 마디아프라데시에서는 의료봉사를 하던 수녀가 '강제 개종' 혐의로 체포됐고, 우타르프라데시에서는 생일 기도 모임에 참석한 달리트 여성 6명이 체포됐다.

다수 사건에서는 피해자 대신 제3자가 고발했으며, 100건 이상의 FIR(1차 경찰 보고서)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는 등 조작 의심 정황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직접적 피해 주장이나 구체적 혐의가 없는 경우, 이는 형사 절차의 남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9~2023년 사이 2만 개 이상의 NGO가 FCRA 등록을 상실했으며, 그 중 1,626개가 기독교 기관이었다. 월드비전 인디아와 인도복음주의연맹(EFI) 등도 '간접 개종' 의혹으로 등록이 취소됐다.

1950년 제정된 대통령령은 달리트 신분을 힌두·시크·불교 신자에게만 부여한다. 기독교·이슬람으로 개종한 달리트는 교육·고용 혜택을 받지 못해 빈곤이 고착된다고 참가자들은 주장했다.

한 달리트 기독교인은 힌두 단체에 의해 매질을 당하고 힌두 기도를 강요받았지만, 경찰이 신고를 거부해 오히려 본인이 반개종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아삼주에서는 기독교 기도의 치유 사역을 '사기 치료'로 간주하는 법이 적용돼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미경 기자

지난 11월 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전국 기독교 대회에 참석한 기독교인들.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쿠쿠 밥솥,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A/S 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자산 13만불 넘어도 메디칼 받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저는 롱비치에 살고 있는데요 67세 입니다. 요즘 저소득 혜택 프로그램 메디칼 때문에 고민이 아주 큽니다. 저는 간경화에 당뇨가 심해서 먹는 약도 많고, 언제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디칼이 저에게는 집 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달에 메디칼 없으면 약값만 해도 6천불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냅니까. 집은 없어도 메디칼은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재산에 상관 없이 그냥 인컴이 저소득이면 되서 지난 2년동안 저소득 메디칼을 받았는데 내년 부터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고 뉴스가 나왔잖습니까. 제가 소득은 적은데 은행에 돈이 좀 있습니다. 소셜 연금으로는 한달에 1158불이 나오지만 솔직히 그 돈으로 사는게 불가능합니다. 주식이 5만불 정도 있고, 은행에 돈 있어도 된다고 해서 집을 2년전에 팔아서 집 판 돈으로 작은 집을 사서 이사한 후에 남은 돈이 22만 불 정도가 은행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은행에 있는 돈 22만불 가지고 약값이나 입원비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메디칼을 받을려고 노력하냐 라고 욕할 지 모르지만, 메디칼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이 돈을 어뉴이티에 넣으면 메디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뉴이티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문선영 선생님 꼭 좀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선생님,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부터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을 위한 건강 보험인 메디칼 혜택을 받는 대상 기준이 크게 변화했지요.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기존에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건 소득이 저소득 기준에만 들어가면 모두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이제 자산은행에 예금이라던지, 주식 보유액, 주택, 차량 등등을 심사에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혼자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싱글이시라면 재산이 13만달러를 넘으면 안되고요,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 재산이 19만 5천달러를 넘으면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4년 부터 도입되었던 자산규모나 체류신분에 상관 없이 소득만으로 메디칼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 자산 규모의 제한이 다시 시행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께요. 메디칼을 신청하는데 내가 가진 돈 전체가 자산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현재 집을 팔고 다시 구입하신 거주 주택 1채는 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선생님이 타시는 차량 1대도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뉴이티나 생명보험에 들어가 있는 자산도 제외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은행에 일단 22만불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식에 있는 돈 5만불이 뭐 더 자라거나 떨어지거나 하겠지만 일단 5만불로 계산하면 이것도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총 자산은 27만불이됩니다. 선생님이 1인 가구일 때 13만불의 자산 기준에서 14만불이 초과가 되는데 이것도 주식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이야기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은행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안되고 , 하지만 소셜 1158불로는 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필요하니 이렇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은행에 있는 돈 22만불 중에서 7만불은 남기고, 15만불을 만약 어뉴이티에 넣으시면 첫째 은행에 있는 돈 때문에 메디칼 혜택을 못받으시는 경우는 피하실 수 있고요, 그 15만불 어뉴이티에서 매년 넣어서 4%씩 꺼내 쓰시면 일년에 6천불, 그래서 한달에 5백불씩이 되서 선생님의 소득은 천 6백 5십 8불 ($1658)이 되어서 월 저소득 1,800불 소득 보다 낮아서 메디칼도 유지하고, 만약 이 어뉴이티에서 매년 5%씩을 꺼내 쓰신다고 해도 일년에 7천 5백에서 월 $625불씩, 그래서 $1783로 저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뉴이티에서는 평균 7~8% 이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니, 4%, 5%씩 꺼내 쓰신다고 해도 원금은 물론이고 돈은 조금씩 더 자라게 될 것 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은행에 있는 자산의 일부를 어뉴이티로 옮겨서4% 혹은 5%씩 꺼내 쓰시고 돈은 이자 받고 자라는 반면, 저소득의 자산 한도액도 해결하고, $1158이라는 적은 금액을 $1800선까지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어뉴이티 플랜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직접 전화주시면 어떻게 어뉴이티에 내 돈을 넣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문선영이었습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미주 최초 시니어 미팅 이벤트
50대 60대 70대 젊은 청춘

로맨스그레이 효도미팅

젊음을 찾아드립니다.

한국 최고의 결혼정보그룹 '선우' 와 미주조선일보가 함께합니다.

- 일시: 12월 21일 (일) 오후 2시부터(약 3시간)
- 장소: 옥스포드팔래스 호텔(2층 다이너스티홀)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대상: 50세 이상 싱글 남녀
- 참가 인원: 남녀 각 50명(총 100명)
- 참가비: $150
- 참가문의: (213)435-1113 | (주)선우

경/품/추/첨
한국 왕복 항공권
1매를 드립니다.
한국 ↔ 미국

당일 5~6명의 시니어 이성 만남이 이루어지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우 결혼정보 업체에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만 추가 비용이 발생 됩니다.

주최 Since 1991 SUNOO Couple.net | (주)선우

후원 A&E 크리스천파운데이션

Chosun Daily LA 미주조선일보

본 행사는 선우(Sunwoo)에서 전적으로 주최하고 운영합니다.
미주조선일보는 본 행사의 기획 또는 실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행사 내용, 운영 또는 관리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